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자본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563.5	16.2	121,000	1.3	13.1	-4.7	-5.8	84.3	40.4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301.3	21.0	325,500	-1.2	6.5	-5.7	-5.9	4.4	3.7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392.9	6.0	19,300	-0.8	7.2	-25.3	-13.1	1.8	1.6	0.2	0.1	9.3	9.7
현대건설기계	849.1	12.0	43,100	0.6	2.0	-11.0	0.9	2.7	2.0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065.2	20.0	8,040	0.2	5.4	-9.2	8.5	50.7	25.2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452.0	12.3	32,200	0.9	11.4	13.2	-5.7	11.3	11.3	0.9	0.8	9.0	6.9
현대미포조선	2,009.1	13.8	50,300	-0.4	2.3	-12.7	-16.2	10.9	7.8	0.4	0.4	3.6	4.8
한진중공업	533.0	20.4	6,400	-1.1	-28.3	7.6	-22.7	128.7	32.1	0.9	0.9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490.4	21.4	91,700	-1.7	14.3	13.5	-14.3	16.2	15.8	2.2	2.0	14.6	13.3
두산밥캣	3,619.0	25.6	36,100	0.6	13.0	18.8	14.6	13.2	12.5	1.0	1.0	7.4	7.6
현대로템	1,844.5	3.9	21,700	-1.1	12.4	0.0	-22.1	28.0	19.1	1.2	1.2	4.5	6.3
하이룩코리아	230.1	46.8	16,900	0.6	-2.9	-11.3	2.7	7.7	7.0	0.7	0.6	8.8	9.0
성광밴드	307.5	18.6	10,750	-0.5	-3.6	-2.7	-5.7	950.3	38.5	0.7	0.7	0.1	1.8
태광	273.0	11.8	10,300	1.0	-3.3	-7.6	-12.0	61.5	30.0	0.6	0.6	1.0	2.1
두산중공업	1,362.5	12.7	6,740	0.6	10.7	-1.4	-19.7	-20.2	23.5	0.3	0.4	-0.1	4.5
두산인프라코어	1,392.6	16.9	6,690	0.0	3.6	-12.2	-11.9	4.6	5.0	0.7	0.7	17.7	13.2
HSD엔진	128.5	3.4	3,900	-0.8	-6.4	-22.6	-26.1	-10.2	-7.5	0.5	0.8	-4.7	-8.9
한국항공우주산업	3,538.3	17.1	36,300	0.1	17.7	2.3	13.8	52.9	23.7	3.2	3.0	6.1	12.8
한화테크윈	1,634.5	14.9	31,700	-1.4	6.9	-4.4	-2.5	131.3	24.0	0.7	0.7	0.6	2.9
LIG넥스원	741.4	7.4	33,700	0.0	-0.4	-6.4	-8.8	77.6	N/A	1.5	N/A	2.4	2.4
태웅	214.1	4.4	10,700	0.9	18.0	5.9	1.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52.8	6.5	9,370	0.1	-4.6	5.5	21.4	-19.8	14.5	3.4	2.8	-16.2	15.8
한국가분	382.5	15.2	8,700	0.6	8.1	1.8	23.6	135.5	28.6	1.2	1.2	0.9	4.3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amsung Heavy teams up with Zvezda for next generation of Arctic LNG carriers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Zvezda 조선소와 LNG선 건조에서 협력한다고 보도됨. LNG선은 2025년 인도 예정이며, GTT의 Mark III를 사용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임. 삼성중공업은 유일하게 St. Petersburg 경제포럼에 참석했고, LNG선 건조 협업을 논의했다고 알려짐.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LNG선 프로젝트 추수에 노력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Mystery LNG newbuilding enquiry emerges for up to 15 ships

조선업체들은 최근 'Project Helen'이라는 코드의 인콰이어리를 받았고, 발주 규모는 LNG선 9+6척(29억달러)으로 알려졌다. 선가는 최대 1.9억달러 수준. 발주 프로젝트가 Mozambique LNG란 소문이 있으나, 선박 사양이 동아프리카 용으로 부족하던 시기가 있음. 또 Rovuma LNG일 가능성도 있고, 사우디 Aramco일 가능성도 제기됨. (TradeWinds)

Victor Restis targets MR tanker newbuildings at STX

STX조선해양은 그리스 Golden Energy Management에서 5만DWT급 MR탱커 2+2척을 수주함. 두 회사는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으나 선가와 납기는 알려지지 않음. 해당 선박은 스크러버를 장착해 선가는 최소 3,7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STX조선은 지금까지 2021년 인도예정 슬롯을 판매했었음. (TradeWinds)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에 선박제어사업 양도 결정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에 전력제어 사업부문 중 선박제어 사업을 양도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함. 양도가액은 127억원으로, 양도일자는 7월 1일임. 현대일렉트릭은 사업재편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양도했다고 밝힘.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 후 다음 달 중 계열 편입될 예정임. (뉴스1)

Mozambique LNG tender to be floated in third quarter

최근 FID(최종투자결정)가 이뤄진 Mozambique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선 16척 용선 및 건조입찰을 3분기에 실시할 계획임. 발주처인 Anadarko는 선박을 건조할 5개 조선사를 실시했고, 조선 3사와 일본 Mitsubishi, Kawasaki 조선소로 구성됨. 먼저 용선 선사가 정해지면, 해당 선사가 5개 조선사 중 선택할 예정임. (TradeWinds)

현대미포, 피더 컨선 2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은 고려해운에서 2,500TEU급 Feeder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인도는 2020년 4분기에 예정됨. 지난 3월에도 2020년 2분기 인도 조건으로 Feeder 3척을 수주함. 당시 선가는 적당 3,570만달러임.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옵션분이 아니며, 계약은 고려해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성립될 예정임. (선박뉴스)

초대형가스선 용선료 6만달러 돌파...미국산 LPG 붐

Clarksons에 따르면 14일 중동-일본 항로 VLGC 일일 용선료는 61,218달러로, 1주일 전 56,286달러 대비 9% 상승. 톤당 가격은 70달러로, 전주 66달러 대비 4달러 상승함. VLGC 평균 손익분기점은 일일 용선료 2.5만달러 수준임. 시장 급등의 배경은 미국발 공급증가로 알려졌다. 미국 셰일기반의 LPG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음. (코리아시핑마켓)

두산밥캣, 차입금 1750억원 조기상환...부채비율 개선

두산밥캣은 차입금 1,750억(1,754억원)을 조기상환했다고 밝힘. 2014년 이래로 7번에 걸쳐 총 8.2억달러를 상환함. 총차입금은 2014년 17억달러에서 현재 8.37억달러로 감소함. 부채비율은 1Q19 80.1%에서 약 7.2%p 내림 전망. 이자비용에 따라 당기순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두산밥캣은 2019년 주당 배당금을 1,200원으로 전년대비 300원 상향함. (조선비즈)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6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6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6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